4일 Market Index

코스피 2473.11 (+11.66)
코스닥 825.16 (+9.80)
금리(국고채 3년) 3.114 (+0.049)
환율(원·달러) 1310.10 (-0.20)

창간 20년 metro® 경제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2년 8월 5일 금요일

[경제종합]
'만 5세 입학' 역풍에 한 발 물러선 朴
03

m-커버스토리

'최소 3분기까지 내리막'… 경기침체에 반도체 비관론

위기의 반도체 업계

하반기 들어 수요 감소 본격화
마이크론 다음 매출전망 확 낮춰

삼성·SK, 역대 최대 매출에도
최소 3분기는 실적 부진 예상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24Gbps GDDR6 D램'을 개발했다. /삼성전자

"역대최고 실적을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하지만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린다."

SK하이닉스 노종원 사장은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급격이 악화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기는 어렵게 됐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반도체 업계가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로 2년여간 '슈퍼사이클'에 버금가는 호황을 누렸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수요 감소가 본격화하고 이런 현상이 내년 이후로까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면서다.

◆ 메모리 '다운 사이클'로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모리 다운사이클 공포는 회계 기준이 한 발 빠른 미국에서 시작됐다. 마이크론이 3~5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도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를 시장 기대치보다도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예상했다. 수요 감소가 본격화했다는게 이유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결국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면서도 하반기부터는 지속하기 힘들 것으로 못박았다. 마이크론과 같이 장기적인 비관론을 꺼내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3분기에는 시장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언택트' 시대를 마무리한 IT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금융 시장도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봉쇄 장기화까지 겹쳤다.

당장 메모리 업계 주요 수요인 스마트폰 시장이 처참한 판매량을 보였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5월에는 1억대도 무너졌다. 중국 시장은 전년 동기보다 14.2%나 감소하며 2012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상향 평준화로 성장세가 크게 꺾인 상황에서 업계는 보급형 확대와 가격 동결 등으로 대응하며 시장을 유지해왔지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하반기부터는 그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버업계도 재고 조정을 본격화했다. 엔데믹과 경기 침체로 실적이 크게 하락하면서 구조조정은 물론 투자까지 축소하기 시작한 것.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최근 재고수준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4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美 반도체 육성, 韓 기업에 실질적 혜택 이어져야"

김진표 국회의장, 펠로시와 회담

미중 경쟁속 피해 우려, 협조 부탁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미 의회의 노력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상황을 고려,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30년 넘는 의정활동 내내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펠로시 의장은 지난 2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여기는 대만에 방문했다. 또한 3일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 류더인 회장과 미국 내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 등과 펠로시 의장과 회동하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가졌다.

김 의장은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3년에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60주년 축하결의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 동안 한미관계는 개혁적으로 발전했다"면서 "교역 측면에서 한미FTA 발효 10주년이 되는데, 10년 전에 비해 교육 규모가 무려 70% 증가해서 작년 기준으로 약 17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측면에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대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 총 1800개 이상의 법인이 6만 명가량의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러한 투자 확대는 미국에는 생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만 한국에도 시장 확대를 포함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의원 대표단을 구성할 때 중점을 두는 세 가지 분야가 있다.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며 "세 가지 분야 모두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굳건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세 분야 모두 한국에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김 의장께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미국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많은 한국계 기업 공여에 힘입어 발전 중이고 한국계 미국인들은 기업가로서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찬을 갖기 전 양국 의장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하는 양국 의회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회는 미 의회가 통과시킨 두 건의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법안을 높이 평가하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통신정보 활용 금융약자 돕는다

통신3사, 신용평가 합작사 설립

통신3사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신용평가 합작법인을 만든다.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및 SGI서울보증,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통신3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사가 추진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비(非)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5개사는 SGI 서울보증 본사에서 전날 오후 합작투자 계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 금융이력 부족자)를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 ESG 경영 가치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신파일러란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자 등 금융거래 정보가 적어 시중에서 카드 발급이나 대출, 금리 혜택 등을 보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말한다.

합작법인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의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비금융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학생이나 가정주부와 같은 금융약자들에게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폭넓은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부동산 공급, 주거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꿀 것"
▲ 권영세-골드버그 만난다… 이견 드러낸 전임자와 다를까 /사진 뉴시스

▲ 유엔사 관할 판문점 CCTV에도 탈북어민 북송 찍혔다
▲ "재난전문가 키워라" 숭실대 등 대학 9곳에 27억 지원

▲ 이영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 선발굴·후제안 도입" /사진 뉴시스
▲광주에서 '민주당 개혁' 요구하는 정치단체 출범한다